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전매체 2026. 7. 26.(일) 10:30

글로벌 TOP 벤처캐피털(VC)과 함께하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 개최

- 실리콘밸리 TOP VC와 국민연금공단 간 MOU 체결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 글로벌 투자기회 발굴 및 유망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현지 시간 7월 25일(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톱(TOP) 벤처캐피털(이하 VC)이 참여하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6개 실리콘밸리 VC가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현황과 글로벌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세콰이어 캐피탈 등 총 3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실리콘밸리 톱(TOP) VC들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각 VC간 투자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은 한국 혁신생태계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유망 혁신기업과 글로벌 투자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지 VC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실리콘밸리 TOP VC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량 투자기회 발굴과 함께 한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촉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MOU)를 실질적인 투자 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해외 VC 투자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MOU 체결에 이어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글로벌 및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동향과 유망 투자 분야 ▲한국 스타트업 투자 사례와 투자 결정 요인 ▲한·미 벤처투자 환경의 차이와 투자 과정의 애로사항 ▲양국 벤처 생태계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모든 벤처캐피털들은 AI관련 기술분야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한국의 AI 분야 우수한 기술인력과 창업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한국 스타트업과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54년간 구글, 엔비디아 등 수많은 빅테크 기업에 초기투자한 세콰이어 캐피탈의 알프레 린은 "최근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고 K-푸드와 친절한 문화에 감명받았다"며 "젊은 사람의 도전정신 고취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스타트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 최대 벤처캐피털인 앤드리슨호로위츠(a16z)의 마틴 카사도는 "a16z는 로보틱스, 바이오 헬스 등 20개가 넘는 한국계 기업에 투자했으며, 최근 한국사무소 개소를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한국의 하드웨어와 제조역량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및 AI와 결합한다면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투자 구루 중 한 명인 비노드 코슬라는 "한국은 인재강국이고 벤처투자는 인재가 있는 곳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국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실패해도 관용하는 문화가 벤처생태계 강화와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LSVP)의 배리 에거스는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인재, 강력한 산업 및 기술 기반을 갖춘 나라로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와 현지 투자자가 함께 최고의 기업 및 창업가를 발굴하고, 벤처캐피털과 대학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면 한·미 양국간 벤처 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너럴 캐털리스트의 헤먼트 터네자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벤처생태계의 자본 확대가 필요하고 한국은 최고 수준의 자동화 로봇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NEA)의 토니 플로랜스 대표는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감명받았다”며, NEA는 트웰브랩스(Twelve Labs) 등 한국 스타트업에 이미 투자한 이력이 있고 리벨리온 등 훌륭한 스타트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실리콘밸리 밋업에 참여한 VC들은 글로벌 톱(TOP) VC들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벤처생태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우리 벤처생태계의 글로벌 연결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맞는 벤처·스타트업 환경 조성과 함께 우리 스타트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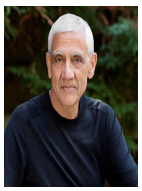
담당 부서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정미라 (044-204-7714)
			주무관	김준석 (044-204-77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참고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 참석 VC 개요

	기관명	개요
1	andreessen horowitz 앤드리슨 호로위츠	▪ (**설립**) 2009년, (**운용자산**) $100B (’26.03, source: 운용사) ▪ **메타(2011년), 인스타그램(2010년), 앤두릴(2019년) 초기 투자, 최근 한국사무소 개설(’26.6)하는 등 적극적 행보** ▪ 분야: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AI), 가상자산, 핀테크, 게임 등 ▪ 대표 투자: 오픈AI, 코인베이스, 데이터브릭스, 깃허브, 웨이모 ▪ 투자실적: 총 2,725건 투자, 569건 회수
2	SEQUOIA 세콰이어 캐피탈	▪ (**설립**) 1972년, (**운용자산**) $60B (source: pitchbook ’26.07 조회) ▪ **애플(1978년), 엔비디아(1993년), 구글(1999년) 초기 투자** ▪ 분야: 정보기술(IT), 헬스케어, 제조,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 대표 투자: 애플, 구글, 에어비앤비, 오픈AI, 앤트로픽 등 ▪ 투자실적: 총 3,026건 투자, 1,004건 회수
3	Lightspeed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 (**설립**) 2000년, (**운용자산**) $52B (’26.06, source: 운용사) ▪ 분야: 헬스, 핀테크, 소비재 ▪ 대표 투자: 스냅, 카르타(Carta), 앤트로픽 등 ▪ 투자실적: 1,713건 투자, 533건 회수
4	GC 제너럴 캐털리스트	▪ (**설립**) 2000년, (**운용자산**) $50B (’26.03, source: 운용사) ▪ **General Catalyst Institute(GCI) 설립**하여 **美정부**와 AI, 국방, 제조, 에너지 **정책 연구** 및 **기술혁신 지원** ▪ 분야: 헬스케어, 국방, 산업재, 에너지, 금융서비스 등 ▪ 대표 투자: 에어비앤비, 스냅, 캔바, 앤트로픽 등 ▪ 투자실적: 총 1,875건 투자, 264건 회수
5	NEA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 (**설립**) 1977년, (**운용자산**) $35B (’25.12, source: 운용사) ▪ 분야: 미디어, 에너지, 헬스케어, 생명과학, AI ▪ 대표 투자: 우버, 로빈후드, 데이터브릭스 등 ▪ 투자실적: 2,813건 투자, 1,215건 회수
6	khosla ventures venture assistance, strategic advice, venture capital 코슬라 벤처스	▪ (설립) 2004년, (**운용자산**) $16B (source: pitchbook ’26.07 조회) ▪ **오픈 AI에 투자한 최초의 VC** ▪ 분야: 소비재, 핀테크, 헬스케어 등 ▪ 대표 투자: 오픈AI, 도어대시(DoorDash) ▪ 투자실적: 총 1,633건 투자, 437건 회수

별첨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 참석자 개요

사진	소속 / 성명	주요 경력 및 특징
	Andreessen Horowitz(a16z) 앤드리슨 호로위츠 **Martin Casado** **마틴 카사도** **(제너럴파트너, 만50세)**	• 스탠퍼드 대학, 컴퓨터 과학 석사·박사 • 앤드리슨 호로위츠 (2016~) • 니씨라 네트웍스 공동창업자·CTO * 변화를 주도할 창업자 위주의 시장 중심 투자 철학을 보유한 대표적인 AI 인프라 투자자
	Sequoia Capital 세콰이어 캐피탈 **Alfred Lin** **알프레드 린** **(공동대표, 만53세)**	• 스탠퍼드 대학, 통계학 석사 • 세콰이어 캐피탈 (2010~) • 자포스닷컴 공동창업자 겸 CEO * 뛰어난 창업자를 핵심적인 투자가치로 평가하며 창업자 선호도도 매우 높은 VC
	General Catalyst 제너럴 캐털리스트 **Hemant Taneja** **헤먼트 터네자** **(대표, 만51세)**	• MIT, 전기공학 및 컴퓨터공학 석사 • 제너럴 캐털리스트 (2002~) • 리방고우, 코뮤어 공동 창업자 * 일반적인 투자를 넘어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VC
	New Enterprise Associates(NEA)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Tony Florence** **토니 플로렌스** **(공동대표, 만57세)**	• 다트머스 대학, MBA •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2008~) • 모건스탠리, MD * 'People first'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멀티 스테이지에서 장기적 지원
	Lightspeed Venture Partners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Barry Eggers** **배리 에거스** **(공동 창업자, 만64세)**	• 스탠퍼드 대학, MBA •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공동창업 (1999~) • 시스코시스템즈 임원 * 기업이 아닌 시대의 기술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장기간 성장할 회사를 선호하는 투자자
	Khosla Ventures 코슬라 벤처스 **Vinod Khosla** **비노드 코슬라** **(창업자, 만71세)**	• 스탠퍼드 대학, MBA • 코슬라 벤처스 (2004~) •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공동창업자 * 어려운 기술에 초기단계부터 모험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VC업계 원로